

우식 회장은 “지금까지 충남건축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던 계기와 앞으로 우리 건축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토론하며 건축사회의 위상제고와 꿈과 희망을 열어가자는 충남건축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충남건축사회, 베트남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 국제교류



충청남도건축사회는 구랍 20일 베트남 호찌민시 건축사협회에서 큼 반 무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국제교류를 갖고 앞으로 양 단체의 상호 방문 정례화, 건축문

화제 참석, 양 단체의 회원 작품전시, 건축사·교수·학생의 상호교류, 학술·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 출판서적의 자료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에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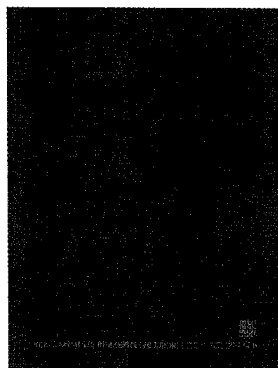
이에 충남건축사회는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건축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21일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부회장(땀) TTT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22일은 부회장(형) 야비 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향후 양 단체 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며 양 단체간의 능력과 가치의 육성으로 건축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충남건축사회는 2009년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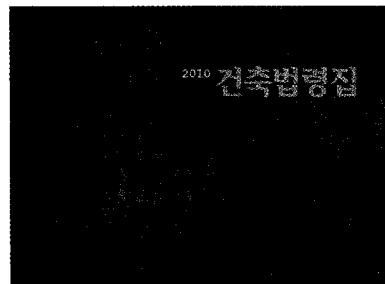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
사전 신청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한 「KOREAN ARCHITECTURE 2010」과 건축사지 통권 500호 발행을 맞이하여 반세기 한국건축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칼럼, 논문, 시론 등을 발췌해 수록한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을 한정 발행한다. 사전신청을 통해 제작실비로 널리 보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란다.

- 도서명: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발행시기: 2011년 1월말
- 사전신청 가격
 - 「KOREAN ARCHITECTURE 2010」 / 4만원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2만원
 - 2권 세트로 신청시 / 5만원(발송비 포함)
- 접수방법: 신청서 송부 및 은행계좌 입금(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입금계좌: 제일은행 435-20-178073(예금주: 대한건축사협회)
- ※ 입금시 반드시 성명 및 지역 기재 (예: 홍길동 부산)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2010 건축 법령집 판매



우리협회는 건축업무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대조식으로 편집하고, 건축관련법령 및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입금증과 구매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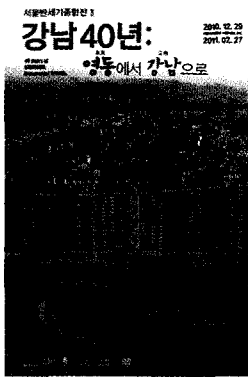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건축계소식

서울반세기종합전 II '강남 40년:영동에서 강남으로' 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이 '서울 반세기 종합전' 일환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강남 40년: 영동에서 강남으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강남이 형성된 과정과 현재의 강남을 다양한 이미지와 스토리로 비교하고 정리한다. 개발 이전 한적한 시골이던 '영동'의 모습과 넘쳐나는 강북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남서울계획', '새서울백지계



획' 등 강남 개발에 대한 구상, 강남 개발을 촉발시킨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공무원아파트 건설, 공공기관 및 학교 이전, 고속버스터미널 건설,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개발과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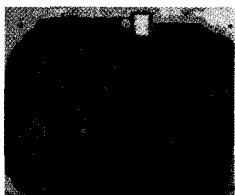
이올러 이 같은 변화를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순서도 마련한다. 지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강남의 도로와

건물, 주거지, 공원 등의 형성 과정, 건물 층수와 노후도건축물의 용도, 필지의 크기, 주택가와 상업지구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형성됐는지 그래픽과 영상으로 설명한다.

'땅에서 본 강남' 코너에는 현재 강남의 다양한 이미지를 모았다. 강남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가감 없이 담는다는 뜻에서 강남의 낮과 밤 풍경, 테헤란로·강남대로 등 대표적인 대로(大路), 고속버스터미널·강남역·코엑스 등의 지하도시, 대치동 학원가, 신사동 성형외과,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말죽거리, 양재천, 구름마을 등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문의 : 서울역사박물관, 02-724-0274

훈데르트바서 한국전시



국내에는 아직 소개된 적이 없는 훈데르트바서의 작품들이 오는 3월 1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 2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화가,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였던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및 철학세계

를 집대성했다. 60점이 넘는 오리지널 페인팅, 건축모형 작품 8점, 오리지널 그래픽 30여점, 태피스트리 5점 등이 전시된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배우 지진희가 훈데르트바서 전시회에서 목소리 나눔 선행에 참여하며, 성인 티켓 판매금액의 3%는 월드비전 기아체험에 기부돼 잠비아 드림스쿨 설립에 사용된다.

• 문의 : (주)문화엠엔씨, 02-545-3944

KCC, '건축환경연구센터' 오픈



KCC는 구립 1일, 차세대 친환경 미래주택 연구개발을 위해 '건축환경 연구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KCC 중앙연구소에 위치한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2,600여㎡(790여 평) 규모로 주거용 건물 실험관과 상업용 건물 실험관 등 2개 동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완공된 KCC 건축환경연구센터에는 총 50여 가지의 친환경 기술을 통해 화석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재료화 요소기술들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반적인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100으로 잡을 경우, KCC 건축환경연구센터는 삼중복층유리 창호와 진공단열 시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 83%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또한 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17%의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KCC 관계자는 "건축환경연구센터를 통해 미래주택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 공유·보급해 나감으로써 미래주택 기술의 실현을 선도해

국제건축사연맹(UIA) 학생 아이디어 공모

국제건축사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 UIA)은 2011년도 동경 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전 세계 건축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동경시 반경 60km 내에 위치한 4개의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주제로 2050년도의 향후 미래 개발 모습을 예측해 계획해야 한다.

주제는 <20세기 과학도시인 츠쿠바(Tsukuba)시 가쓰라기(Katsuragi)구 북부에 대학 부설 국제의료센터 재건>과 <쓰치우라(Tsuchiura) 지역을 교통, 주거, 경제의 허브 도시로 재활성화하고, 수상 스포츠 및 여가를 위한 센터 계획>, <21세기 이나시키 정원 도시(Inashiki Garden City)의 생태학적 신도시 계획>, <가쓰미가우라(Kasumigaura) 남부 해안 지역에 스마트(Smart) 지구 설계>로 4가지이며, 이 중 1가지를 선택하여 2011년 3월 31일 18:00까지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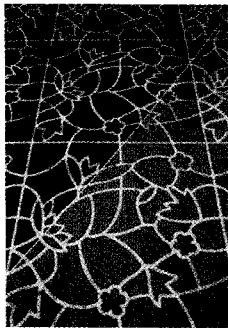
심사위원은 Kengo Kuma(일본), Yung Ho Chang(중국), Peter Hall(영국), Kate Schwennsen(미국), Nobuaki Furuya(일본), 기술자문 : Hidehiko Sazanami(일본)이며, 상금은 각 주제별 세 개의 상이 주어지는데 각각 ¥300,000(약 4,200,000원), ¥200,000(약 2,800,000원), ¥100,000(약 1,400,000원)이다. 추가시상은 UIA 회원단체에서 제공하며, 상금은 각각 ¥200,000(약 2,800,000원), ¥100,000(약 1,400,000원), ¥50,000(약 700,000원)이다.

참가신청 온라인(<http://www.uia2011tokyo.com/en/callfor/>)으로 해야 하며, 자세한 지침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정작은 2011년 9월 27일 프리젠테이션이 예정돼 있고, 시상식은 2011년 9월 28일에 개최한다.

• 문의 : comp_uia@congre.co.jp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환경 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건축환경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CC, 미끄럽지 않은 도로용 도로 '스포로드' 출시



KCC가 미끄럽지 않은 도로용 도로 'KCC 스포로드'를 구입 초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KCC 스포로드'는 고강도 MMA(Methyl Methacrylate) 타입의 도로 포장재로 미끄럼 저항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소지와외의 부착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또한 외부 기온과는 무관하게 1시간 내에 경화된다는 점이 돋보인다. 도로 작업 시 중요한 것은 시공성이다. 도로의 도로 도장 시에는 도로 통제를 필요로 하므로, 상온에서 빠른 속도로

경화되어 단시간 내에 시공이 가능한 'KCC 스포로드'는 도로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도로 시설에도 보수도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KCC 스포로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급커브나 내리막 등 도로 위험구간, 자전거 전용 도로 등에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스포로드의 가장 큰 장점인 미끄럼 방지 기능은 아침이슬, 우천 등 습윤 상태에서도 안전한 주행, 보행이 가능하다.

도막의 내구성도 탁월하다. 소지와외의 부착성,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며, 상도 투명을 도장 시에는 내 오염성능도 가지게 되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시공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특히 작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단순하고 어두운 컬러의 도로는 이제 그만! 색다른 빛깔과 모양으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고 싶다면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 바닥재'를 주목할 만하다.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 바닥재'로 도장한다면, 다양한 스탠실 도안을 적용하여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컬러와 문양의 외관을 표현할 수 있다. 보행로 및 산책로 등에 화사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가로수, 건물 등 주변경관과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KCC 관계자는 "KCC 스포로드는 도로의 물성과 시공성이 좋아, 작업자들도 환영할 만한 바닥용 도로"라며, "특히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 바닥재는 다양한 컬러와 패턴 적용이 가능하며, 스쿨존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 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단조롭고 획일적인 도로를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은 5가지 색상을 상비하고 있으며, 상비색상 외 컬러도 조색 가능하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시간 <상자의 재구성>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인 저자가 르 코르뷔지에의 '기적의 상자'를 우리 고건축에서 발견하고 해석한 책이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사부아 저택을 설계할 당시 '상자'의 성립을 선언하는 '입방체식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석사, 소쇄원, 종묘경전을 설명한다. 또한 자신이 건축한 건축물 곤지암 주택, 토포하우스, 경주 주말주택 등 또 다른 상자인 다섯 개의 건축물을 통해 '기적의 상자'를 현대 건축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 문의 : 픽셀하우스, 02-825-3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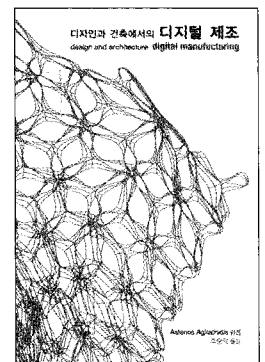
디자인과 건축에서의 디지털 제조

Asterios Agkathidis 저, 조순익 역 | 136쪽 | 시공문화사

이 책은 새로운 컴퓨터 보조 설계 및 디지털 제조 기법들의 도입으로 디자인과 건축에서 떠오르고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본다. 스테디들은 디지털적으로 개념화된 구조들을 1:1 실물 프로토타입들로 변환하고 실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한 기하학을 넘어서길 시도한다. 설계 및 생산 단계 동안에는 제조 기법과 생산 비용에 대한 기능과 재료 특성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고려해야 한다. 생성적인 CAD 툴들, 알고리즘, 그리고 스크립팅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디자인 요소들로서만이 아니라, 주로 복잡한 기하형상들의 생산 과정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장치들로서 사용됐다.

• 문의 : 시공문화사, 02-3147-1212



맞춤과 이음_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결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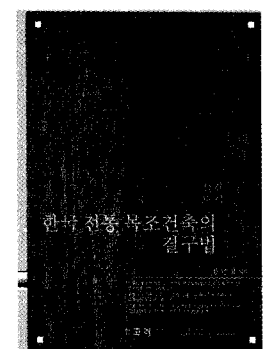
정연상 저 | 352쪽 | 도서출판 고려

이 책은 안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오랜 현장경험과 노력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는 50여 채가 넘는 대표적인 우리 전통건축물들의 다양한 사례와 맞춤과 이음에 관한 풍부한 도면, 사진들로 목조건축의 결구법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건축물들이 어떠한 부재로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문의 : 도서출판 고려, 02-2277-1424



신간안내

상자의 재구성_기적의 상자를 건축적으로 작문하다

정진국 저 | 182쪽 | 픽셀하우스